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TORY THEIVES

가제 : 이야기 도둑들

저자 : James Riley

출판사: Aladdin

발행일: 2015년 1월 20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책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넘나드는 모험

오웬은 따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엄마는 일만 너무 열심히 하고, 학교 선생님은 맨날 하기 싫은 숙제를 잔뜩 내고, 학교 친구들은 노는데 잘 끼워주지도 않고 자꾸 무시한다. 오웬이 이런 지겨운 생활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얻는 건 오로지 이야기책뿐. 가장 좋아하는 책은 ‘키엘 그노멘풋’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이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 힘든 일이 오웬의 눈 앞에서 벌어진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오웬과 같은 반 친구인 베다니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책 속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실제 세상 속 엄마와 이야기책 속 인물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베다니. 아버지는 그녀가 아주 어릴 때 다시 책 속으로 돌아가버렸고, 엄마와 베다니는 온갖 책을 다 뒤지고 다니며 아빠를 찾아 해냈다. 오웬에게 이런 비밀을 들리게 된 베다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걱정하고, 오웬은 베다니가 왠지 측은하게 느껴졌지만 왠지 자신도 이야기 책에 들어가 모험을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오웬은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자신도 이야기책 속에 들어가게 해 달라 부탁하고, 베다니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웬이 들어가려는 책 속에서 혹시 아빠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수락한다. 단, 베다니는 오웬에게 책 속에 다 정해진 이야기가 바뀌지 않도록, 책 속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

하지만 오웬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들어 있었다. 6권까지 나온 ‘키엘 그노멘풋’에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덩블도어와 꼭 닮은 교수가 벼랑 끝에 매달려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자신이 책에 들어가서 그를 구해줘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다. 교수는 오웬이 이 책에서 나오는 등장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신 나간 과학자와 악당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악당인 베리티 박사의 손에 죽게 된 것이 도통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다니가 경고했듯이, 책 속 이야기를 바꿔놓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가상의 인물들과 실제 세상의 두 친구가 펼치는 위험천만한 모험, '이야기 속의 이야기'

오웬은 베다니와 함께 '키엘 그노멘풋' 6권에 들어가 교수를 구하려 하고, 결국 아직 출간되지 않은 7권에 나올 이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사건, 마법과 과학의 전투에 휘말려 눈덩이 속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런데 어쩌다 목숨을 건진 이야기 속 교수는 자신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잔뜩 화가 난 그는 다른 허구의 인물들 모두가 이야기에 묶인 삶 대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게다가 교수는 이 시리즈물을 만든 작가를 책 속에 들어가게 해서 자유의지가 없는 삶을 맛보게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이 계획을 알게 된 베다니는 홀로 교수를 막아야 한다. 결국 오웬과 베다니가 책 속에서 저지른 행동들은 이야기 내용은 물론이고 현실 세계에까지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리고 책 속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될까?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와 독특한 설정 속에서 진정한 우정과 용기가 무엇인지 잘 그려낸 책이다.

<저자 소개>

제임스 라일리(James Riley)는 《Half Upon a Time》 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책을 발표한 작가다. 현재 워싱턴 외곽에 살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제목 : THE MYSTERY OF THE CLOCKWORK SPARROW

가제 : 태엽 참새의 미스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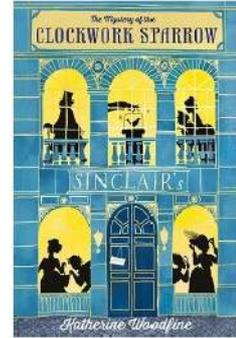
저자 : Katherine Woodfine

출판사: Egmont Books Ltd

발행일: 2015년 6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1909년 런던에 등장한 초호화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열다섯 소녀, 그녀를 곤경으로 몰고 온 도난사건

소피는 런던에 새로 등장한 놀라운 쇼핑센터, 싱클레어 백화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는 합격 통보를 받고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무 기댈 곳 없이 세상에 홀로 남아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열다섯 소녀에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고급 백화점에서 일하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다. 때는 1909년, 자수성가한 미국인 에드워드 싱클레어가 런던에 탄생시킨 싱클레어 백화점은 대리석 바닥과 구석구석을 장식한 귀중한 예술품까지, 그야말로 호화로운 극치였다. 이곳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된 소피. 아직 개점 전이지만 미리 선발된 직원들은 개점 준비를 위해 일을 시작했고, 소피도 어떻게든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적응해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다. 게다가 도난 사건까지 터지고 마는데, 사라진 물건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예술품인 ‘태엽 참새’. 사건은 런던 시민 전체가 손꼽아 기다리던 백화점 첫 개점일 바로 전날밤에 일어났고 강도는 폭력까지 행사하며 젊은 직원 한 명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이 작품을 훔쳐서 달아나버렸다. 백화점 전체가 술렁였지만, 개점을 미룰 수는 없었다. 런던 시민 전체가 기다리는 마당에 개점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경찰과 백화점에서 고용한 형사는 진상 조사에 나선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소피가 유력한 용의자로 몰린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그 날, 강도와 마주쳐 크게 다친 직원인 버트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소피라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버트는 백화점 밖으로 불러내서 그녀를 못살게 굴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누군가가 몰래 숨어 놓은 증거들 때문에 소피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결국 제대로 일해보기도 전에 일자리도 잃을 위기에 처한다. 다행히 소피의 곁에는 화려한 외모와 그 누구의 말에도 기죽지 않는 열혈 친구 릴리안과, 백화점에 수습 경비로 채용된 빌리가 있었다. 여배우를 꿈꾸는 릴리안과 만화책에 등장하는 영리한 형사 캐릭터를 이상처럼 받들며 사는 빌리, 두 친구는 소피의 누명을 벗기고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점점 드러나는 사악한 배후의 인물, 그의 치밀한 계획을 막기 위해 힘을 모은 세 친구의 진한 우정

세 사람은 도난 사건의 배후에 ‘거물’로만 알려진 미스터리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는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가장 두려운 공포의 대상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온갖 범죄를 지휘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이 ‘거물과’ 수하들의 눈을 피해 싱클레어 백화점에 숨어든 ‘조’라는 남자와 만난 소피, 릴리안, 빌리 세 사람은 조의 도움을 받아 거물의 실체와 그의 흉악한 범죄를 돕는 자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거물이 영국의 국가 기밀을 독일군에게 팔아 넘기려는 계약에 훔쳐간 ‘태엽 참새’를 이용할 계획임을 알게 된다.

사건 전체에 세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극장에서 거물의 움직임을 몰래 뒤쫓던 소피가 그만 발각되어 그에게 붙들리고 마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에게 끌려간 소피는 그날 밤, 거물이 백화점 전체를 폭파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집 지하에 만들어진 터널을 발견하고 탈출에 성공한 소피는 아무 것도 모르고 백화점에 있을 친구들의 목숨을 구하고 거물의 공범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한다. 거물을 추종하던 집단은 그가 정의를 구현하려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실망을 하게 되고, 거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소피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데다 사건이 소피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연관된 낚새가 느껴지면서 사건은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소피와 소중한 두 친구들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이 치밀한 계획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살인과 음모, 1900년대 런던의 모습과 진한 우정이 한데 어우러진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서린 우드파인(Katherine Woodfine)은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2009년부터 문학 단체 ‘북트러스트(Booktrust)’에서 어린이 도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